

1/8(토) 창세기 25-28장 하나님이 하십니다!

오늘부터는 이삭의 가정, 야곱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

아브라함은 ‘여호와 이레’의 하나님을 신뢰하며(22:14).

며느리를 맞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위임한 바 있습니다(24장).

또한 상속자 이삭을 위해 주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(25:1-6,12-18).

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맞이했습니다(24:12, 65, 25:19-20).

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족속에 속한 정숙한 소녀로(24:3-4,24,15)

긍휼과 배려의 마음, 건강한 체력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(24:18-20).

리브가는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 지체하지 않고 떠납니다.

마치 아브라함이 <고향, 친척, 아버지의 집>을 떠난 것과 같습니다(24:58).

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고, 어머니의 빈자리를 내주었습니다(24:67).

이삭의 가정도 아브라함-사라와 동일한 문제를 겪게 됩니다.

그러나 이삭은 <기도>했습니다. 하나님께 전권을 위임합니다.

이로써 리브가의 20년 난임과 임신은 단 한 줄로 기록됩니다(25:21,26).

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순순히 자신을 제물로 드린 바 있습니다(22:7,9)

평생 한 아내와 살았고 분쟁 대신 평화를 택했습니다(26:12-33)

이러한 연유로 이삭의 이야기는 분량도 짧고 대부분 평온합니다.

그러나 이삭의 성품이 때로 모호하고 불분명해 보입니다.

아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가장으로서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(26-27장).

이삭은 중보의 사람, 온유한 자였으나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.

우리는 선택된 자들도 연약한 한 사람의 인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.

그 가운데서 태를 여시고, 보호하시며,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.

오늘 말씀을 통독하며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만져 나가시는지 살펴보십시오.

더불어 **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위임하는가?** 묵상해 보십시오.

❶ 나는 이삭처럼 중보하며, 억울한 분쟁에도 하나님 방법을 택합니까?

❷ 야곱처럼 <인위적인 방식>을 선택합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창세기 25-28장 (20:50)